

제주시 풍년 기원하는 첫 통수식 열렸다

윤진주리 기자 | 승인 2024.04.24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무릉저수지서...용천수 활용 30만t 공급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김동철 본부장)는 24일 무릉저수지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용수의 물길을 여는 통수식을 진행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주 최초의 통수식이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김동철 본부장)는 24일 무릉저수지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용수의 물길을 여는 통수식을 진행했다.

통수식이란 논농사 중심의 농업문화에서 4월 한해 농사 시작에 앞서 저수지 수문을 통해 물꼬를 여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작년 말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완공된 무릉저수지의 첫 통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급변하는 기후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용천수, 하천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완공된 무릉저수지는 대체 수자원인 용천수를 활용한 30만t 규모로, 대정지역 2164ha 농지에 농업용수를 연중 상시 공급하고, 고갈되어 가고 있는 제주의 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는 주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철 본부장은 “올해 영농에 대비해 선도적인 농업용수 관리로 농업인에게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우리 공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용수 관리로 가뭄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주리 기자